

2024 자신학회 세미나 1강

# 초기 동서방 교회의 신학적 자의식 형성

2024년 5월24일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 라틴 교회의 개념

## 라틴교회 - 서방교회: 동일한 개념

- 로마제국 내에서 동방과 서방은 구별된 개념. 지리적, 문화적 구분.
- 동방은 알렉산더 이후로 헬라 문화.
- 헬라어는 - 무역언어, 접촉언어. 이집트, 팔레스타인.
- 서방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로마인, 무역업자들.
- 로마의 서방 식민지화: 이주민 파송, 스페인, 고을 (Gaul) 지방, 북아프리카.

## 로마의 서방지역은 점차로 라틴어 사용권으로 변모

-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는 라틴어의 후예.
- 라틴 아메리카 - 언어와, 문화, 영속적 문화 이식, 단일성 유지
- 로마의 역설적 위치: 서방의 유일 도시, 지리적으로 동방 근접, 헬라어 사용.
- 기본적으로 동방교회의 영향으로 세워지고, 꾸준한 관계성.
- 보수적인 지역: 로마교회 예배 때 헬라어 사용 약 AD 250년까지.

## 라틴 지역에서의 기독교의 본질

- 200년 동안 본질적으로 이민자들(expatriate congregation).
- 동방에서 온 무역업자들. (로마서 16장)
- 서머나의 이레니우스: 리용 (남부 프랑스) 주교 임명.
- 이레니우스는 헬라어 말하고, 헬라어로 목회. 아주 소수자를 위한 목회.
- 기독교 복음이 지역 문화에 깊이 침투하지 못함.

# 북아프리카 교회의 특징

어디가 북아프리카인가?

- 이집트는 아프리카 아님. 사하라 남부도 포함 안됨.
- 현대 튀니지. 동 알제리. 부유한 지역. 페니키아, 두로, 시돈 큰 무역국가
- 카르타고가 BC 146년 로마에 정복됨. BC 46년 카르타고에 로마 도시 건설
- 카르타고는 로마, 라틴어 지역으로 지속. 2세기에 라틴 제국은 카르타고는 제 2의 로마. 발전하고 번역하는 지역. 교육에서도 큰 발전.
- 서유럽서 이탈리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발전. wine and oil region

기독교역사에서 북아프리카의 중요성

- 당시 교회에 대한 풍성한 기록, 180년에 남은 첫 기록은 박해에 대한 기록
- 순교한 사람들이 도시 카르타고가 아닌 지방의 소규모 마을에서부터 비롯.?
- 기독교가 지역 깊숙이까지 확산 증거, 다른 지역교회 찾기 어려운 현상
- 북아프리카에서 박해와 순교의 역할, 박해의 신학 정립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5:10)
- 박해는 신자의 신실성 반증, 그러나 모두 이겨낸 것은 아님. 배교 발생
- 도나투스파가 북아프리카에서 강경한 원인. 박해 후 교회 수용 여부 논쟁
- 북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정서 훨씬 강력. 용서를 받기 어렵다
- 교회에 재수용조건: 다음 박해 때 앞서 순교해 믿음의 진정성 보이는 것?
- 이러한 엄격함이 북아프리카 교회의 기조.

# 라틴 교회의 대표 신학자 터툴리안

터툴리안(c.155-230)은 누구인가?

- 최초로 라틴어로 신학 저술한 교부, 삼위일체 처음 사용, 카르타고 출신
- 법률공부한 학자 출신, 아프리카의 제1의 신학자
  -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증거한다.”
  -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 “나는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Credo, quia absurdum est)

터툴리안의 인격적, 신학적 성향

- 엄정성, 비판적 신학, 세속화에 대한 강한 반감. 이방 문화와의 타협 비판.
- 극장, 공연, 놀이, 검투사 등 로마 문화 즐기는 것 반대.
- 군인들- 황제에 대한 경례/경배 금지. 기독교인의 정치와 공적 토론 금지
- 재혼 및 박해를 피한 도피, 배교, 살인, 간음을 죄로 규정
- 터툴리안의 도덕적인 민감성은 보편교회(Catholic church)에서 벗어나게 함
- 후일 금욕적인 몬타누스파에 속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

세 가지 처녀성 (virginity)

1.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 특별한 메리트 있거나 찬양할만한 것 아님.
2.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녀성
3.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혼하고 아내/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

# 금욕주의적 신학

## 금욕주의

- 고대의 기준에서 보면 덜 금욕적이지만 금욕 강조.
- 결혼에 대한 시각: 결혼은 성경에 써 있는 것이므로 수용하지만 제한적
- 여성 차별: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 먹은 것 아니라 아내의 말 들은 것
- 결혼의 정당성 인정하나, 반대의 것 옹호. 라틴 교회의 뿌리 형성.
- 성직자의 독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 유아세례 반대

- 터툴리안은 유아가 세례받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거둬낸다.
- 하지만 아기가 세례받는 것은 불공정.
- 구원받고 죄에서 씻음 받지만, 만약 자라서 아기가 죄짓는다면, 구원의 기회 상실.
- 세례 후의 죄를 씻을 길은 '순교'밖에 없다.?
- 해결책: 아이가 자라고, 죄 짓게 하라. 30살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세례 받게 하라.?
- 문제: 30살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될 경우 어떻게?
- 여기서 출현한 것이 임종시의 세례. 초대교회에 보편적으로 실행.
- 임종을 준비하고, 내세의 삶 준비. 중세교회의 병자성사(extreme unction)로 발전

## 터툴리안의 구약, 신약 이해

기독교는 유대율법의 재해석과 발전: “복음은 새로운 법이다.”

- 기독교 복음과 유대법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 아닌 수준차이.
- 유대율법이 구원에 모자란 이유: 충분히 엄격하지 않아서.?
- 모세는 자유주의자, 이혼을 허락. 예수님은 간음 이외에는 이혼 금지.?
- 예수와 모세의 차이는 이혼 허락하는데 더 제한적.
- 이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는 이혼을 인정했는가??
- 이러한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님.?
- 과도기에는 선도, 유예기간(Time of transition, period of grace)
- 누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바뀌는데 시간 걸림.

### 터툴리안의 기본 관점

- 이제 은혜의 시대는 가고 엄격한 (예수가 의도했던) 것을 시행해야 할 시점
- 기독교회는 신약에서보다 더 엄격한 료를 적용할 수 있다.
- “내가 하는 것이 더 엄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의도했던 것”
- 터툴리언의 주장은 신약에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예수가 의도한 것 추구
- 가장 엄격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라틴교회의 사고방식에 흡입
-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혼 금지.
- 이혼 금지로 시작하여, 이혼 허용으로 끝난 가톨릭 교회

# 가톨릭 의화 교리에 미친 영향

## 터툴리안 신학의 핵심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 율법의 완성자 예수
- 로마 가톨릭 교회는 터툴리안의 견해 영향 수용.
- 중세 내내 서방 교회 구조 속에 용해 -- 이 욕구의 완성.
-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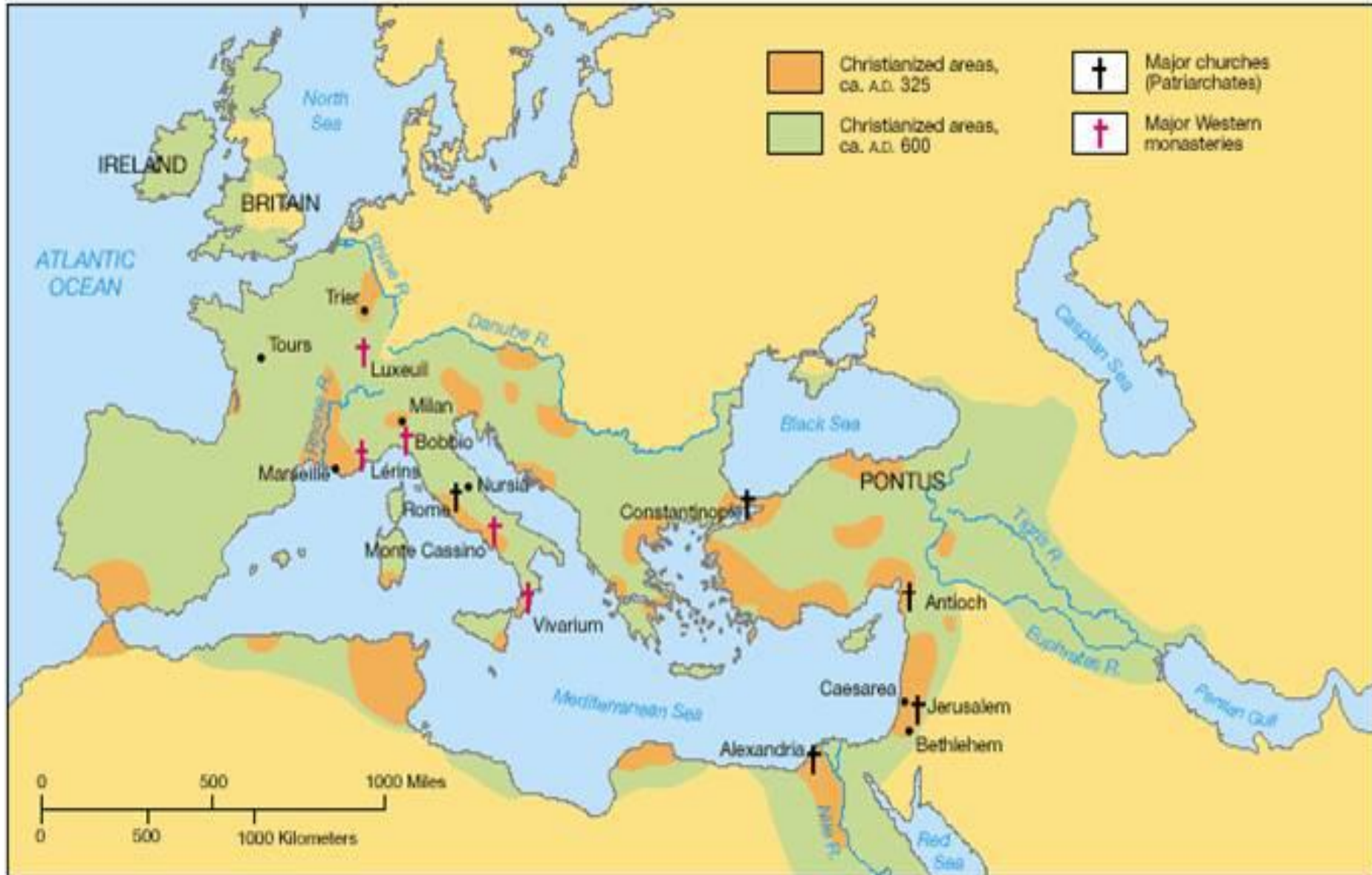
## 성인들: 이를 성공한 사람들:

- 성인(saints).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중보 하는 자 sainthood, 영적 엘리트
- 신약의 가르침과 상반 (모든 기독교인이 성도 saints). 터툴리안에게는 보다 제한적 의미 → 성취하기 어렵다. 마틴 루터의 가톨릭 교회의 공격점.
- 루터: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터툴리안에게 의화(justification)과 성화(sanctification)은 같은 개념.
- 중세 가톨릭 신학의 핵심. 성화의 정도로 의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percentage religion.)

## 터툴리안 교리의 논쟁점

- 구원의 교리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노예화
- 박해 강해지면서 급박한 재림에 대한 확신. 극단주의 (extremism) 강화
-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측면이 서방 교회의 틀인 가톨릭 교회에 흡수

# 초대 교회 총대주교구 교회





# 동방교회 이해

## 서방 교회는 구체성

- 서방 교회에서 터툴리안이 첫 번째, 으뜸 - 법적인 개념에서 비롯
- 사고방식이 법적인 질문, 정부(government), 정치 (politics).
- 법적인 개념의 차용 (justification by faith. election. adoption.)
- 서방교회 성사(sacrament)의 의미? 선서(oath)
- 군사로서 입대의 개념(army of Christ)
-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다는 실제적 개념

## 동방 교회의 특징 개관

- 동방은 매우 다른 방식, 배경은 서방만큼 명확하고 단순, 직선적 아님
- 로마와 같이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지점이 없이 여러 신학 중심. 각각의 권위, 영향면에서 지방마다 차이. 서방은 로마, 동방은 복수의 지역들

## 동방 전통의 시작점

- 언제, 어떻게 동방의 전통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 신약에서 시작했고 신약에 있는 교회가 바로 동방의 전통인가?
- 그들이 쓰는 언어가 신약의 언어이다.
- 동방신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인을 지목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이레니우스, 저스틴. 그들 중 누구도 동방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 서방과 동방: 언어 사용과 의미 차이

언어와 단어의 사용이 서방과 다르다.

- 예) 성사(sacrament) 동방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없다.
- 세례, 성찬 등을 서방에서는 성사(sacrament)
- 동방에서는 mysterion (mystery) - 전혀 다른 심리적 이해
- mysterion - oath of soldier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미스테리온의 정의

- 뭔가가 다른 것을 숨기는 것. 사건의 실체는 숨겨져 있는 것. 미스테리요 비밀. 이것은 큰 함의 가진다. 어떻게 세례를 볼 것인가?
- 서방에서는 서명하고, 참여하면 되는 종교의 서약(oath of religion)
-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salvation army).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
- 가서 군인의 매일 훈련을 받는 것. 금식, 기도, 금욕 등등
- 이에 대해 군인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 않음. 명확한 작동 방식

동방에서의 성사? 미스터리

- 미스터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누군가 세례 주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아무도 모른다. 성령이 오셨는가? 아닌가? 무슨 일이 그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모른다. ? 동방 전통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
- 개신교 종교개혁은 가톨릭에서 주장되던 것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
- 서방은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다.

## 동방신학 - 미스테리

동방의 문제 제기 -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나? 이것이 점점 더 동방의 전통 속에 들어간다.
- 세례는 상징이지만, 영적인 리얼리티가 무엇이나?
- 모든 것은 미스테리. 인간이 간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
- 실제적인 의문 - 알지 못한다면 왜 의식을 행하나?
- 세례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또 다른 예: 혼인

- 어떤 것이 결혼을 성사시키는가? 혼인식, 혼인서약, 혼인신고?
- 언제인지 결정해야만 할 경우, 어떤 것을 고려할 것인가?
- 교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합방 - 미스테리가 서방의 세크라멘트에 유지
- 의식과 서명 있어도 합방 안 하면 결혼 취소 가능.
- 결혼이 성직자 없이 합방해도, 교회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사제의 선포나, 혼인 신고 등에 상관 없이 합방하면 결혼 인정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의식 (ritual)을 행하는가?

- 형식과 실질의 관계는? 법적인 형식 절차가 왜 실질에 영향을 주는가?
- 교회의 의식 (세례, 성찬 등) - 보다 깊은 신적인 미스테리에 들어가는 통로
- 개신교 - 외형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 동방과 서방의 차이

같은 언어. 다른 컨텍스트.

- 사전 찾아 적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
- 기독교가 비서구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문제는 훨씬 심해짐.
-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초기교회 수많은 논쟁들이 서로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 일어난 것.
- 어휘는 많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다.
- 기독교론(Christology)에서 논쟁이 여기에서 비롯.

오리겐의 신학 출발

- 신플라톤 주의에 경도
- 참된 존재(true being) ? 궁극적 존재 ? 이데아, 관념적
- 가시적 존재(visible thing) ? 다양한 단계 ? 하지만 타락한 존재
- 계층적 구조 이해 - 하나님, 천사, 인간, 동물, 무생물
- 사람에게 해당될 때 명확 - 헬라인/남자/성인

# 동방교회 신학의 특징

동방교회: apophaticism, 전통, theosis, 성화상

- Apophaticism : 부정신학 negative theology. Mystery of God. 어둠, 그림자. Revelation vs. mystery. 신비를 풀고 이해하고자 하는 라틴 교회 전통에 비해 동방 교회는 단순히 신비에 경배와 예배.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장소로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다.  
 서구: 성경과 전통.  
 동방: 전통은 성령의 증인. 성령이 성경과 공의회. 오순절이 공의회  
 통해 재현. 공의회가 성경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
- *Theosis* “deification”: 신성화. 인간의 신성화. 동방의 구원론.  
 서방은 구원의 방식으로 죄와 칭의.  
 동방은 신성화. 아타나시우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에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와 같이 되게 하  
 도록. (서구 신비주의자들)
- 성화상(icon) 사용: 서방은 고통 받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동방은 왕이요 재판관

# 교회와 국가의 관계

## 초대교회와 국가의 관계

- 신약에서는 신약교회가 국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로마서 13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세속군주에게 복종
-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반국가적이거나 혁명적인 존재가 아니다.
- 세속과 반대하지 않은 한 이유는 관심 없어서.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세속국가 넘어서는 사명이 있다.

## 국가는 다른 식으로 생각

- 로마제국은 우주적 지배권 주장. 육체 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하고자. 이것은 세속 역사에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로마는 영적 기관.
- 황제가 죽을 때 그들은 신이 된다. 지배군주는 신의 아들. 로마는 영적 사명 가진 도시.
- 그들은 신화를 창조하여 이런 지배를 공고히 한다.
- 로마 초기 종교는 조상숭배와 유사
- 군대는 황제를 섬겨야 한다. 로마종교가 다신교(politheistic)
- 로마 판테온. 이집트, 그리스 신들 다 수용.
- 유대인이 문제였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신만 섬기기 때문에.

# 제국과 기독교, 유대교

##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

- 유대인은 상대적 문제 안됨. 확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유지하므로
- 기독교는 로마가 주창하는 보편주의의 대체 제공
- 기독교회는 로마제국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주장. 영적 통치권.
- 기독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평안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 복음 전파하는 기독교 - '너는 구원 받아야 한다.', 로마가 지향하는 가치 위협

##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로마제국은?

- 기존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황제를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적 생활은 의문에 빠지게 될 것. 로마의 근건 훼손에 대한 두려움

## 3세기 중엽에 박해 다시 일어난 이유

- 기독교가 성장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위협.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국가에 복종한다고 반박하지만,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 200-250년 사이에 동방(이집트) 제국에서 기독교인이 늘었다.
- 엄청난 수가 기독교를 인정. 아래로부터 풀뿌리 기독교
- 대다수의 생각을 통제하기 어렵다. 황제가 이것을 인식.
- 250년에 박해가 보다 심해진 이유. 위협이 점증. 교회의 파괴 (거점 훼손)

# 기독교의 세력화 - 한 가지 에피소드

## 제노비아와 로마 제국

- 260년. 제노비아(Zenobia)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 팔미라 왕국 여왕
- 팔미라는 로마의 속주, 로마에 대한 항거, 제노비아가 260년에 반란 성공적으로 이끔
- 대부분 시리아 지방 정복. 안디옥을 점령한 후 취한 조치
- 안디옥 운영 위해 사모사타의 바울 (Paul of Samosata)을 총독으로 세움
- 사모사타의 바울- 현지 출신. 터키 유프라테스
- 바울은 기독교 주교. 국가 고위직에 오른 첫 번째 주교

## 제노비아는 안디옥 통치 위해 기독교 세력 의존

- 교회의 영향력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회의 수장을 총독
- 분명히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인구소유. 그렇지 않다면 제노비아의 정책 실패했을 것
- 268년 사모사타의 바울이 총독일 때 안디옥 교회회의 열렸다.
- 안디옥 교회는 제노비아에게 불만
- 따라서 로마를 지원해서 제노비아를 맞서기 원함.
- 바울을 268년에 이단으로 폐위, 하지만 여전히 주교직 유지
- 언제까지? 272년 로마가 직접 통치할 때까지
- 이를 통해 로마가 얻은 교훈 - 기독교의 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콘스탄틴 황제

디오클레시안 죽은 후에 박해 중단

- 교회 관계에 있어서 별 일 없었다.
- 306년, 디오클레시안 퇴위 이후 새로운 시저로 된 콘스탄티어스.
- 그는 요크에 있는 로마 브리튼 군대의 우두머리
- 그가 죽었다. 군대가 만장일치로 그의 아들을 계승하도록 선출.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시저의 계승자는 군대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가 선출해야 한다. 순서 잘못. 쿠데타.

로마 내부 전쟁 발발, 콘스탄틴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싸워야 되게 됨

- 306년부터 콘스탄틴이 점차로 자신의 브리튼 군대를 강화. 좋은 기회. 침략받기에 너무 멀다.
- 콘스탄틴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 북 프랑스, 독일을 건너 남진.
- 정복하며, 대부분 서유럽을 정복. 정복의 핵심은 이탈리아.
- 이탈리아 정복하면 누구도 문제제기 못한다. 312년 그가 이탈리아 정복해서 로마에 다다른다. 10월에 다다른다.
- 여기에서 유럽사에서 10월 27일 가장 극적인 순간.
- 밀비안 전투 - 기독교 문양 방패에 새겨 넣게 했다. 미신적인 것. 그는 승리했다. 아우구스투스로 임명하고 로마로 들어왔다.
- 밀라노 칙령(313) - 기독교 공인

# 밀라노 칙령과 콘스탄틴의 기독교 정책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 밀라노 칙령.

- 콘스탄틴이 회심했는가? 아주 답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늘에서 비전을 보고, 그것을 방패에 미신적으로 새겨 넣은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 콘스탄틴은 신학자는 아니라, 군인이다. 그의 인생에 대한 이해는 군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주 직접적,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것.
- 이것이 그가 했던 것이다.
- 우리는 결코 그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 우리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는 것.
- 그는 아주 위험한 노선을 걸었다. 교회를 공인하는 것. 로마법과 기독교를 연합 (cooperation) 하는 것.

콘스탄틴의 기독교 정책

- 성직자가 합법적 신분. 교회 재산 합법적.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는 않았다.
-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에 호감이나, 다른 이방종교와 동일한 형태의 관심
- 321년 그가 기독교 안식일 지정. 태양신숭배자도 똑같이 안식일 향유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감이 기독교에 더 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교회 성직자에게 군인복무와 세금을 면제.
- 교회 성직자에게 특별 대우를 준 것. 교회에 엄청난 이점.

# 밀라노 칙령에서 니케아 공의회까지

밀라노 칙령이 제국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가?

- 동방로마 제국은 콘스탄틴이 통치하지 않는 곳. 콘스탄틴의 행위는 로마의 체계에 대한 반란
- 군인이 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계승원칙을 허물었다. 인정할 준비 안됨. 동방 제국에서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좋게 안 보았다. 제노비아의 기억.
- 콘스탄틴은 동방도 정복해야 했다. 12년 소요.
- 그는 324년에야 동방제국을 점령. 그의 밀라노 칙령이 324년에야 동, 서로마에 효력.
-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325년에야 첫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난 이유

# 기독교 공인 이후 갈등 - 서방

## 기독교 공인 이후 갈등 - 서방

- 갈등은 공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몰랐다.
-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 콘스탄틴이 다루기 어려운 갈등.
- 이것이 서방,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발생.
- 회개한 죄인들 - 박해 때에 배교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교회가 받아주어야 하는가?

## 도나투스 파

- 도나투스. 대항 교회의 주교가 됨.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 믿음을 배반한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도나티스트.
- 분파 (schism) ? 이단 (heresy)과의 차별
- 엄격한 권징-완벽한 교회를 위하여. 오직 완벽한 사람만이 교회 내 수용
- 북아프리카 교회를 두 개로 갈라놓았다. 4세기 동안 도나투스가 다수.
- 도나투스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이론.

# 기독교 공인 이후 갈등 - 동방

##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갈등

- 콘스탄틴이 동방을 점령할 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
- 한 사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를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나 하나님은 아니다.
- 아리우스(Arius)
- 318년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파문과 가르치는 직분 잃었다.
- 이러한 처분이 효과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그는 자기 것을 가르쳤다.
- 금하기는 했으나 물리적으로 그를 교회에서 몰아내지는 못했다.
- 324년 콘스탄틴이 오고, 공인되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되었다.

## 아리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표면으로 대두

- 콘스탄틴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 공인 이후 교회 내부 분열 심각함 인지
- 아리우스논쟁 - 예수의 신성 논쟁
-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던 알렉산더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장로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리우스(Arius)와 충돌
- 가장 중요한 논쟁-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느냐는 것
-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There was when He was not)"
- 공의회 소집해 (1) 이단이 무엇인가? (2)그들 추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 1차 니케아 공의회의 기원.

## 니케아 공의회 소집

소아시아의 니케아(Nicea)에 감독들이 모인 것은 서기 325년.

- 약 300명 정도로 추정. 대부분 헬라어권의 동방, 소수의 서방 대표
- 감독들은 박해 후에 시급히 처리해야 했던 많은 안건들을 의논.
- 이들은 변절자들을 다시 교회 안에 받아 들이는 절차와, 장로들과 감독들의 신출 및 안수, 그리고 여러 교구들의 우선 순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

### 니케아 공의회-아리우스 논쟁

-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리우스 논쟁.
- 확신에 찬 소수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참석.
- 이들의 리더는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
- 아리우스는 감독이 아니어서 참석 못하고 유세비우스가 대변
- 반대편은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가 통솔.
- 아리우스주의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신.
- 대부분은 박해가 처음 종식되고 새로운 기회와 문제 출현하는 가운데 교회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논쟁이 발생했다는 자체 걱정.
- 회의 초기에 이들 감독들은 우선 타협책 찾기에 부심.
-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 대표적 인물은 동료 감독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학식 있는 역사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 니케아 공의회 - 예수의 본질 표현

## 니케아 공의회-예수의 본질 표현

- 회의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어느 편의 교리도 정죄함이 없이 화해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들은 이제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한 표현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해야 한다고 확신
- 아리우스주의를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의 신앙을 표현할 신경을 작성한다는 데에 합의

호모우시오스(*homoousios*), 동일본질 - 알렉산더

호모이우시오스(*homoiousios*), 유사본질 - 온건파 아리우스

헤테로우시오스(*heterousios*), 이성본질 - 아리우스

- 아리우스주의를 명백하게 배격하였던 신경에 합의

##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의 모체

- 감독들은 합의한 신경에 의해 아리우스 논쟁이 끝나기를 소망하여 서명.
-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포함한 극소수만이 서명을 거부.
- 회의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직분을 박탈.
- 콘스탄틴은 면직된 감독들을 자기들의 도시에서 축출.
- 교회 문제에 세속적 처벌을 첨가한 행위는 그 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
- 교리의 정통 여부 문제에 관하여 세속 권력이 개입한 전례를 남김.

#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전개

니케아 종교 회의가 문제의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함.

-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뛰어난 정략가, 황제의 먼 친척
- 콘스탄틴을 회유하는데 진력.
- 니코메디아에는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으므로 유세비우스는 다시 호소
- 황제는 아리우스파에 대한 자기의 조처가 지나쳤다고 결정.
- 아리우스 자신도 귀양에서 풀려났으며, 콘스탄틴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에게 그를 성찬에 참여시키도록 명령.
-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가 사망.
- 그의 뒤를 계승한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정통 신앙의 수호자가 됨.
- 이 무렵에 니케아 신앙을 지키는 지도자들 중 대부분이 함께 유배.
- 콘스탄틴은 임종 직전에야 결국 세례를 신청
-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

-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소집
- 아폴리나리스(Appolinaris, 310-390)파 주장(그리스도는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을 논의, '니케아신조' 작성
-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아리우스 반대)이시며, 완전한 인간(아폴리나리스 반대)이심을 확증. 정통 교회의 기독론 재확정



# 알렉산드리아 학파 vs. 안디옥 학파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세 도시 - 특별한 지위

- 로마 - 수도
- 알렉산드리아 ? 헬라어권 주도적 도시
- 안디옥 - 역시 헬라어권의 또 다른 주도 도시

각기 지역의 주도권

- 로마 - 이탈리아, 서유럽
- 알렉산드리아 - 이집트
- 안디옥 - 시리아, 소아시아
- 그들이 각각의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다.
- 이러한 구조가 콘스탄티노플로 인해 침해되었다. - 새로운 로마.
- 로마제국의 새 수도가 되어 로마 다음의 지위 획득
- 콘스탄티노플의 요청은 다른 지역 반발 야기

대립 구도 형성

- 문제는 콘스탄티노플 ? 새로운 도시, 새로운 로마
- 알렉산드리아- 헬라어권에서 두 번째 도시로 밀리게 됨.
- 콘스탄티노플 설립 이후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공조 - 콘스탄티노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 5개 대주교구 형성

### 로마의 지위에 대한 영적 해석 시도

- 콘스탄티노플 이전 후 로마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 영적 해석 시도 - 왜 로마가 가장 중요한 도시인가?
- 바로 베드로가 세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영적 의미 부여.
- 사도 중의 사도인 베드로의 권위가 로마 교회 통해 계승
- 사도적 계승 apostolic succession theory.  
베드로와 로마와의 관계 - 로마에서 죽었다. 분명 어떤 연관은 있었겠지만, 로마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영적 해석 - 로마교회의 설립자.
- 성경에서 첫 번째 도시 - 베드로가 주재했던 첫 번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4세기 예루살렘은 떨어진 작은 마을.
- 다른 대도시 교회와 동등한 지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예루살렘이 제국의 5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로 포함됨
- 5 patriarchate - 각각 돌 볼 영토 가졌다. 예루살렘 규모, 가난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작은 지역. 명예직

###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이 서로 연결

- 주요 이유 - 콘스탄티노플이 원래 안디옥에 속했던 지역을 잘라낸 것.
- 전통은 콘스탄티노플이 주교나 대부분 성직자를 안디옥 출신.

# 주도권 다툼, 로마교회의 형성

## 예루살렘은 로마와 가까움

- 로마가 예루살렘의 지위 인정.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지 추구

## 주도권 다툼

- 핵심은 공의회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 5개의 교회가 공동으로 동의.
- 두 개의 큰 신학 학파 형성 -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 알렉산드리아? 4세기 가장 저명한 지적 중심지. 신약에서 잊혀진 지역
-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시작했는가 알려지지 않음, 70인 역이 여기에서 번역, 가장 큰 유대 공동체 형성. 클레멘트, 오리겐. 신학사상 주도 역할

## 영적 기원

- 로마는 베드로를 설립자
- 예루살렘 - 베드로
- 안디옥 - 베드로, 한때 머물러서
- 알렉산드리아 - 마가를 설립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알렉산드리아는 베드로의 비서.
- 콘스탄티노플 - 새로운 로마, 로마의 자매 도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설립자로 봄. 오늘날에도 공식적으로 주장됨

# 알렉산드리아 학파 vs. 안디옥 학파

## 성서 해석 전통의 차이

- 알렉산드리아 학파 ? 알레고리 (allegory) 해석
- 안디옥 학파 ? 역사적, 문자적 해석

## 알렉산드리아 학파 - 알레고리, 영적 해석

- 알레고리적 해석은 문자나 명백한 사실 아래에 그 구절의 진의가 따로 있다고 믿는 해석.
- 모든 지상적인 물체나 사건에 대응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유사체가 존재
- 가시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 세상을 이원화하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유래
-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나 내용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캐내어 교회의 교리가 성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재확인, 교회의 교리를 성서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교리와 성서로부터 신앙과 신앙적 삶의 지침 도출.?
-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서해석을 대표하는 사람은 오리겐(185-254).
- 오리겐은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성 모독이나 모순 야기. 구약 기사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비도덕적.
- 노아의 폭음, 야곱의 처첩들, 다말의 유다, 탐심에 대한 금지 규정 등
- 구약 성경을 지나칠 정도로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장애물들이 초래. 오리겐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깊은 의미를 파악 시도.

# 우화적 해석 vs. 문자적 해석

## 알렉산드리아 학파 - 우화적 해석

-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서해석의 특징은 우화적 해석. 우화적 해석의 기원은 히랍문화 작품을 변증하고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생겨난 것.?
- 구약의 비도덕적 진술 그리고 공관복음의 상이점등의 난해점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신뢰가운데서 영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

## 안디옥 학파의 성서 해석

- 유대교의 문자주의
- 문자적 성경 해석 방법은 문장의 성격이나 또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구나 절의 성격상, 가능하다면 그 문장의 표현을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야 할 특수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한, 본문의 문자적 의미로 만족.
- 세부분맥에 과잉 충성을 하던 나머지 그들은 근본적인 것을 상실하고 보수적인 것을 크게 확대 랍비적 주석의 주요한 결함은 하나의 과도문자주의나 자구주의 (letterism)의 개발.

# 안디옥 학파

## 역사적 해석

- 안디옥 학파의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창세기를 통한 우화적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들은 역사에서 그 실제성을 전부 박탈해버렸다고 비판.
- 아담은 사실 아담이 아니며, 낙원은 사실 낙원이 아니라면?
- "그런 경우 실제 사건의 발생이 없었으며 아담은 실제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우리의 구원은 무슨 의의가 있다는 말인가?" (테오도르)
- 안디옥 학파는 성경이 문자적인 동시에 영적이며, 역사적인 동시에 예표적인 측면을 지닌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

## 역사적인 사건전체가 영적 신학적 진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

-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영적인 진리에 관한 인식
- 이 역사적인 사건과 영적인 진리의 연결은 이중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 저자들이 원래 의도한 단 하나의 의미.
- 하나의 의미란 문자적이면서 영적이고 역사적이면서 예표적인 것.
-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를 구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성경 해석학 원리에 당면해서는 문자적 역사적 주석에 대해 강력한 자세